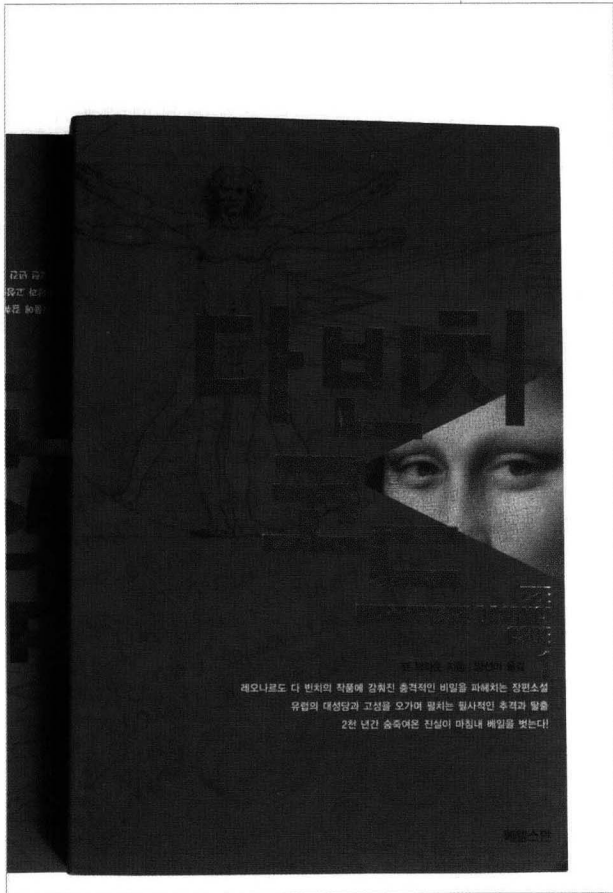


노출된 대중 입맛에 끌려가는

《다 빈치 코드》

문학 고유의 질감 없는, '교환가능성'으로 채워진 작품

정여울



《다 빈치 코드》(전2권) 댄 브라운 지음 | 양선아 옮김 | 베텔스만코리아 | 각권 360쪽 내외 | 각권 값 7,800원

중세의 기호학과 21세기의 사이버 테크놀로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다 빈치 코드》의 시공간은 창조된다. 흔히 《다 빈치 코드》는 《장미의 이름》에 비견되지만 실제로 많은 독자들은 그들간의 닮은꼴보다는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 《장미의 이름》이 소설적 흥미와 철학적 깊이, 암기하고픈 인상적 수사학의 삼박자를 갖춘 '소설을 넘어선 소설'이라면, 《다 빈치 코드》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스케일과 전통적 추리소설의 기법, 무엇보다도 전문적 감식안을 필요치 않는 '이지 리딩'의 어법을 구사하는 퓨전적 텍스트다.

《장미의 이름》은 결코 쉽게 읽혀지지 않는다. 수많은 주석들과 생소한 용어들에 매번 좌절하며 머리를 싸매게 되지만 막상 다 읽고 나면 뿌듯함을 넘어 내 안에 낯선 우주 하나가 등지를 튼 듯 가슴 한켠이 저릿해진다. 《장미의 이름》은 대중적 독서에서뿐 아니라 수많은 철학자, 역사학자, 작가들에게 지적·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킨 스테디셀러다. 즉 《장미의 이름》은 '베스트셀러'의 고정적 독자층의 폭을 공격적으로 확장시키며 베스트셀러 그 자체의 뉘앙스(쉽고 빠르게 읽힌다는!)를 전복했다. 그러나 《다 빈치 코드》는 스피디한 도입부에 비해 뒤로 갈수록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전들로 혈거운 내러티브를 자아낸다. 무엇보다도 《다 빈치 코드》를 읽은 첫 번째 느낌은 '성글고 단조로운 모자이크'를 감상하고 있는 듯한 강력한 기시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법은 《다 빈치 코드》로서는 섭섭한 비교일 것이다. 《다 빈치 코드》는 나의 무지갯빛 기대를 충족시키진 않았지만 의외의 흥미로운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다. 스토리 자체로만 본다면 중세 추리물의 클리셰를 차곡차곡 밟아가고 있지만 유럽문화와 미국문화가 교묘하게 충돌을 일으켜 빚어내는 문화전쟁의 긴장과 갈등은 새로운 호기심을 증폭시켜주었다. 어디서나 발견되는 미국 다국적 기업의 상표들은 등장인물들에게 아무런 이물감 없이 편안하게 소비된다.(네스카페, 코카콜라,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러나 이 소설 속 유럽인들은 할리우드 영화로 대표되는 아메리칸 드림의 판타지를 끊임없이 조롱한다.

루브르박물관을 비롯해 웨스트민스터 사원, 런던 템플교회 등등은 유럽인의 자존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문화적 알리바이다. 《다 빈치 코드》의 카메라가 훑어가는 모든 거리들이 그 자체로 화려한 박물관이다. 독자들은 이 모든 곳을 사진과 미디어를 통해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그 낯익은 도시들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갈망을 불러일으킨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며 거리 자체가 궁전처럼 느껴지는 유럽의 판타지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어디서 들었던 듯하면서도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성배와 예수의 사생활을 둘러싼 비밀들은 독자들을 향해 '그곳에 가고픈' 오랜 여행의 꿈을 충동질한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저자는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 대중이 무엇을 원하도

록 요구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날쌔 감각의 소유자다. 기독교의 일상적 아이콘들은 너무나 보편적이면서도 여전히 고농도로 압축된 은유의 보물창고다. 게다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다 빈치의 그림들에 그토록 이단적이고 다채로운 기호학적 무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흥미로운 애깃거리다. '예수의 프라이버시'가 뿜어내는 매혹적 아우라는 전 세계 독자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저자 댄 브라운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치밀하게 정리하지 못한 문제들, '평범 속의 비범'의 코드들로 독자를 유혹하는 명민한 작가다.

하지만 그의 감각과 '글밭'이 상업적 코드에 '먹힌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웬지 그의 집필 장면이 마치 눈앞의 홀로그램처럼 뻔하게 펼쳐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책상 오른쪽에는 요즘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들을 산디미처럼 쌓아놓고, 책상 왼쪽에는 성서와 기독교 서적들과 예수의 행적에 관련된 전문서적들을 한 무더기 쌓아놓고, '치밀한 모자이크 능력'으로 퍼즐을 짜 맞춘 듯한 느낌. 기호학이나 신학에 관련된 지식이 지나친 설명조로(마치 혼자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투로!) 나열하는 방식이라든지, 다채로운 직업과 욕망을 가졌지만 어쩐지 피와 살을 얻지 못한 주인공들의 틀에 박힌 움직임과 대화들이 그 증거다. 즉 이 소설은 '스포일러성 광고주의'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더라도, 이 책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조차도, 이미 독자의 마음 속에 풍요로운 스포일러성 정보들이 범람하는 책이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초호화판 미장센과 각양각색의 등장인물(신부, 수녀, 교수, 기호학자, 형사, 도서관 사서 등등)과 초특급 액션 스릴러(?)의 기법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너무도 쉬운 '교환가능성'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소설은 영화의 언어와 이미지들로 쉽게 '번역' 가능하고, TV 시리즈 형태의 드라마적 기법으로도 재빨리 '교환' 가능하다. 《다 빈치 코드》는 이 책이 꼭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책'이라는 형태로 나왔어야 했는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셈이다. 《장미의 이름》은 영화화되기도 했지만 소설과 영화가 뿜어내는 질감이 전혀 다르다. 즉 '책'으로서의 《장미의 이름》은 영화의 언어로는 도저히 번역 불가능한 이미지와 지식과 감정의 미세한 떨림이 카오스적 축제처럼 펼쳐진다. 또한 '소설'의 형식만이 간직할 수 있는, 결코 다른 장르로는 환원 불가능한 언어적 힘이 《다 빈치 코드》에서는 감지되지 않는 것이다.

푸코의 《말과 사물》은 '뻥처럼 빠린 책'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개념들과 알쏭달쏭 꿈속을 걷는 듯한 수사학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의 여행필수품이자 지하철탐승준비물 1호였다고 한다. 진정한 베스트셀러는 '이미 노출된 대중의 입맛'에 의존하지 않는다. 진실로 사려 깊은 베스트셀러는 독자의 욕망과 지적 수준을 상상할 수 없었던 높이로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누구나 가려워하고 아파하는 상처와 환부를 정확히 발견하여 쓰다듬는, 드넓은 품을 지닌 책이다. 베스트셀러라는 이름으로 모든 이와 '공유'하기에는 너무도 탐욕스레 '독점'하고 싶은, 색시한 베스트셀러를 꿈꾸는 일은 지나친 몽상일까. 며칠 전 《칼의 노래》의 광고를 거대하게 프린팅한 시내버스가 지나쳐 가는 모습을 보고 현기증을 느꼈다. 나의 비밀의 서가에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던 그 책의 열굴이 버젓이 8차선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장면이 문득 공포스러웠지만, 그것은 나의 철없는 독점욕 혹은 소유욕임을 안다. 나로 하여금 맹렬한 질투와 광기 어린 집착을 동시에 선물해 주는 베스트셀러가 탄생한다면, 책이라면 눈이 아프다며 손사래를 치시는 내 어머니의 베갯머리에 조용히 놓아드리고 싶다. ■■

● **이 글을 쓴 정여울은**

서울대 국문과 박사과정에 있다. 현재 '미디어헌터'로 여러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20세기 초 몽유약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 〈비정치성의 정치성, 비역사성의 역사성-이옥론〉 공저로는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book+ing, 책과 만나다》 〈국민 국가의 정치적 상상력〉이 있다.

